

배우자이상화와 결혼만족도: 의사소통 패턴의 매개효과*

박 유 빈

한 그 립

정 연 우

박 선 응†

토론토대학교

고려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이상화(배우자를 배우자 자신이 평가하는 것보다 더 이상적 배우자에 가깝다고 평가하는 것)가 본인 및 배우자의 결혼만족도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세 가지 의사소통 패턴(건설적 의사소통, 남편요구-아내철회, 아내요구-남편철회)의 역할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78쌍의 부부가 자기 자신, 배우자, 그리고 이상형의 성격에 대해 응답하고, 의사소통 패턴과 결혼만족도에 대한 척도에 답변하였다. 연구 결과 남녀 모두 배우자를 이상화하는 것은 본인과 배우자의 높은 결혼만족도와 관련이 있었다. 또한 남편의 배우자이상화와 아내의 배우자이상화는 각각 아내가 지각하는 부부의 건설적 의사소통을 통해 두 사람의 높은 결혼만족도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의 배우자이상화와 결혼만족도 간의 정적 관계는 아내가 지각하는 낮은 남편요구-아내철회 및 낮은 아내요구-남편철회 패턴이 매개하였다. 아내의 배우자이상화와 남편의 결혼만족도 간의 정적 관계는 아내가 지각한 낮은 아내요구-남편철회 패턴을 통해 매개되었다. 종합해보면, 사람들은 자신이 이상화하거나 자신을 이상화하는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에서 더 만족감을 느끼며 이 과정에서 아내가 부부의 의사소통 방식을 어떻게 지각하는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배우자에 대한 지각이 결혼만족도에 장기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요어 : 이상화, 긍정적 환상, 연인관계, 결혼만족도, 갈등 의사소통

* 본 연구는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NRF-2016S1A5A2A02926605).

† 교신저자: 박선응,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136-70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Tel: 02-3290-2868, E-mail: sunwpark@korea.ac.kr

“우리는 완벽한 상대를 발견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지 않은 상대를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법을 배우으로써 사랑하게 된다.”

- 샘 킨 (Sam Keen)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연인과의 관계에서 대부분 좋은 모습만을 보고 보여주며, 제한적인 맥락 속에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연인이 완벽하다는 환상을 갖기 쉽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불가피하게 서로의 단점을 마주하게 된다 (Huston, 1994; Waller & Hill, 1951).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사람들이 그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연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편향된 지각을 가지고 있을 때, 구체적으로는 배우자를 이상화하고 있을 때 관계 만족도가 높으며 시간이 지나도 높은 만족도를 유지할 수 있음을 보고해 왔다 (Miller, Niehuis, & Huston, 2006; Murray & Holmes, 1997). 그러나 이러한 이상화의 주체가 아니라 이상화의 대상이 되는 것이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비일관적인 결과가 보고된 바 있으며 (Murray et al., 2011; Tomlinson, Aron, Carmichael, Reis, & Holmes, 2014), 이상화가 어떠한 기제를 통해 두 사람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서는 충분한 탐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 관계에서 배우자를 이상화하는 것이 본인 및 배우자의 결혼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나아가 배우자이상화와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부부의 의사소통 패턴의 역할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배우자이상화와 만족도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객관적인 현실뿐 아니라 자신의 바람, 기대, 동기의 영향을 받으며 (Kunda, 1990), 이는 연인의 행동을 해석하고 연인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에도 다르지 않다. 특히 결혼을 한 부부의 경우 대개 관계에 대해 높은 투자와 헌신을 보이기 때문에 (Sprecher, 1988) 그만큼 더 관계에 대한 확

신을 얻고자 배우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편향되거나 왜곡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Murray, 1999).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경제적 능력을 이상형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A의 배우자 B는 지난 수년 간 주식투자를 통해 손해를 보기도 하고 이익을 보기도 하여 실제로는 손해도 이익도 없는 상태이고 B 역시 이를 주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A가 B의 성공적인 투자에만 집중하여 B가 높은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한다면 A가 B를 이상화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선행 연구는 이렇듯 한 연인이 상대방을 상대방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 즉 상대방의 자기평가보다 더 이상형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정도로 이상화를 조작화하여 연구해 왔다 (Murray & Holmes, 1997).

이상화 개념을 이용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상대를 이상화하는 것이 관계에 긍정적이라는 결과가 많이 보고되었다. 예를 들어 연애 중인 연인 및 결혼한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상대방을 이상화하는 사람은 관계에 더 만족하고 있었으며, 1년 후에도 만족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urray, Holmes, & Griffin, 1996). 뿐만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환상이 깨지기 쉽고 따라서 높은 이상화에 따른 위험이 더 클 수 있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했을 때에도 결혼 초기의 배우자이상화는 3년 후 높은 결혼만족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Murray et al., 2011).

이처럼 배우자를 이상화하는 당사자(이상화 주체)에게 있어 이상화가 만족도와 정적인 상관관을 보인다는 데에는 비교적 일관적 결과가 보고된 반면, 이상화되는 대상(이상화 객체)에게 있어 이상화와 만족도가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지에 관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며 일관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다 (Murray et al., 2011; Tomlinson et al., 2014). 이런 비일관적인 결과를 염두에 둘 때 이상화 객체의 관계 만족도에 관해서는 상반된 가설이 제시될 수 있다. 우선 상대방이 자신을

이상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사람들은 우울감을 느끼게 되어 높은 관계 내 특권의식을 갖게 될 수 있다(relational entitlement; Tolmacz & Mikulincer, 2011). 관계 내 특권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나는 가끔 연인에게 내가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와 같은 항목에 동의하는 경향을 보이며 관계에서 큰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eorge-Levi, Vilchinsky, Tolmacz, & Liberman, 2014). 또 연인이 자신을 이상화한다는 지각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이상에 맞추어야 한다는 부담을 줌으로써 관계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실제로 연인관계 내 완벽주의에 관한 연구에서는 연인이 자신의 완벽한 모습을 기대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관계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toeber, 2012). 특히 상대방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는 완벽주의 염려가 높은 사람들은 관계 내에서 부정적인 갈등 행동 및 대처 전략을 보였으며, 이는 높은 우울감과 결혼 부적응 등과 관련이 있었다(Haring, Hewitt, & Flett, 2003; Mackinnon et al., 2012). 상대가 자신을 이상화한다는 지각이 완벽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부담을 줄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연구 결과는 배우자이상화 객체의 관계 만족도가 낮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과 대립되는 가설, 즉 배우자이상화 객체의 만족도가 높을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Overall, Fletcher와 Simpson(2006)의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연인을 이상형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각할수록 연인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이상형에 맞게끔 연인을 변화시키려는 조율과정이 장기적으로 본인 및 연인의 관계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조율의 대상이 되지 않는 배우자이상화 객체의 관계만족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완벽주의에 관한 연구에서도 완벽함에 대한 염려가 아닌 완벽함에 대한 추구의 경우 긍정적인 결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toeber & Otto,

2006). 따라서 이상화가 상대방에게 배우자의 이상에 가까워져야 한다는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형에 가까워지게끔 노력할 동기를 부여한다면 배우자이상화는 객체의 결혼만족도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배우자이상화의 주체와 객체의 결혼만족도를 동시에 살펴보고자 하였다.

의사소통 패턴의 매개효과

배우자이상화가 그 주체 및 객체의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변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Campbell, Lackenbauer, & Muise, 2006; Neff & Karney, 2005), 둘 간의 상관관계만으로 그 과정을 해석하는 것 보다는 배우자이상화가 어떠한 기제를 통해 두 사람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 변인을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우자이상화와 결혼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변인 중 하나는 부부의 소통 방식이다. 상대방을 어떻게 지각하는지는 그 사람과의 의사소통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McLeod & Chaffee, 1973), 의사소통 방식은 관계가 발달하고 유지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Noller & Feeney, 1998).

특히나 결혼 생활에서 부부는 대화를 통해 친밀감과 신뢰를 증진시키고 갈등을 해결하기 때문에(Laurenceau, Barrett, & Rovine, 2005; Stanley, Markman, & Whitton, 2002), 의사소통 방식은 관계의 만족을 예측하는 중요한 행동적 변인으로 나타난다(박영화, 고재홍, 2005). Baucom, Epstein, Kirby와 LaTaillade(2010)는 건강한 부부와 그렇지 않은 부부의 차이를 의사소통 방식으로 구분하였으며, 소통방식의 교육을 통한 관계 치료의 효과성을 입증한 바 있다. 이외에도 비난, 방어적 태도, 경멸, 답뽀기(회피) 등과 같은 부부의 의사소통 방식은 14년 후 이혼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으며(Gottman & Levenson, 2000),

신혼부부의 상호작용을 관찰한 결과는 6년 후 이혼여부와 만족도를 예측하였다(Gottman, Coan, Carrere, & Swanson, 1998).

부부 의사소통 연구에서 특히 일관적으로 부정적 효과를 보이는 소통 방식은 ‘요구-철회(demand-withdraw)’ 양상이다(Eldridge & Christensen, 2002). 요구행동은 배우자에게 불평하고 비난하며 변화를 재촉하는 것을 의미하고, 철회행동은 침묵을 지키거나 대화 주제를 돌리거나 자리를 뜨는 등의 회피성 행동 등을 포함한다. 많은 연구에서 아내요구-남편철회 양상, 다시 말해 아내가 요구행동을 보이고 남편은 철회행동을 보이는 의사소통 방식이 특히나 빈번하게 보고되었다(Christensen & Heavey, 1993; Gottman & Levenson, 2000). 이러한 남녀 차이는 여성이 관계에 더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변화를 요구한다거나 남성은 스트레스에 따른 반응성이 높아 갈등을 회피한다는 식의 개인차에 초점을 둔 관점, 현재 결혼 제도에서 여성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더 적기 때문에 여성의 요구행동이 높다는 사회구조적 관점 등으로 해석되어 왔다(Heavey, Layne, & Christensen, 1993). 국내연구에서도 의사소통 방식은 한국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꼽혔으며(김희진, 2004), 특히나 아내요구-남편철회의 패턴이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장문선, 2002).

이상화와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의사소통 방식의 매개효과를 직접적으로 관찰한 연구는 없으나 관련 연구는 배우자이상화가 다양한 방식으로 부부의 소통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배우자에 대한 평가나 배우자의 문제행동을 해석하는 방식은 갈등에 반응하고 소통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Fincham, 2004). 예를 들어 배우자가 성과급으로 받은 돈을 주식에 투자하고자 할 때 배우자의 주식투자 능력을 높다고 평가하는 사람과 낮다고 평가하는 사람이 이 결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은 전혀 다를 것이다. 또 배우자를 높이

평가하는 사람은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방의 잘못을 최소화할 이유를 찾음으로써(Bradbury & Fincham, 1990) 적응적으로 갈등에 대처하고 건설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Murray와 Holmes(1997) 또한 배우자를 이상화하는 것이 상대의 행동을 관대하게 바라보고 포용하게 하여 갈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배우자이상화가 높을수록 갈등의 빈도가 낮고 갈등이 일어났을 때 회피 등 손상적 대응양식을 보이는 경향성이 낮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연인이 변화하길 바라는 정도가 클수록 요구 및 철회행동이 모두 높거나, 특정 요구-철회행동 양상(본인의 높은 요구행동과 동시에 연인의 높은 철회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Caughlin & Vangelisti, 1999; Christensen & Heavey, 1993). 배우자를 이상화하는 사람의 경우 배우자에게 많은 변화를 바라지 않을 수 있고, 이는 낮은 요구행동으로 이어져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배우자이상화가 객체가 지각하는 의사소통 방식에도 동일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불분명하다. 예를 들어 배우자를 이상화하는 주체는 상대에게 요구하는 것이 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객체의 경우 자신을 이상화하는 주제로부터 간접적인 변화 요구를 느낄 수 있다. 즉, 배우자 이상화는 객체에게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회피 등 부적응적인 갈등 대처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다(Haring et al., 2003; Mackinnon et al., 2012). 반대로 사람들은 자신을 이상화하는 배우자와의 대화에서 오히려 이상적인 배우자가 되려는 노력을 하고, 이에 따라 건설적 의사소통 방식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자기충족적 예언(Merton, 1948)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도 연인관계 내에서 상대의 행동에 대한 기대는 실제 상호작용이나 관계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혀왔다(Downey, Freitas, Michaelis, & Khouri, 1998; Murray et al., 1996). 이러한 상반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 사람의 배우자이상화가 두 사람

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부의 의사소통 방식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배우자이상화가 이상화 주체 및 객체의 결혼만족도와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 살펴보고, 그 사이에서 의사소통 패턴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참여자들은 자기 자신, 배우자, 그리고 이상적 배우자상을 묘사하는 성격 프로파일을 작성하였고, 배우자이상화는 배우자에 대한 평가와 배우자의 자기평가 간의 차이가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 배우자상과 일치하는 정도로 조작화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아닌 부부 단위로 참여자를 모집하여 배우자이상화와 주체와 객체가 보고하는 의사소통 패턴 및 만족도 간의 상관을 동시에 살펴보았으며, 남편과 아내의 데이터는 독립성을 가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개인이 아닌 부부를 분석단위로 사용하는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APIM; Kenny, Kashy, & Cook, 2006)을 사용하였다. APIM에서는 자신의 배우자이상화가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자기 효과; actor effect)와 자신에 대한 배우자의 이상화가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상대방 효과; partner effect)가 동시에 추정되며,

이에 따라 그림 1과 같은 매개모형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을 건설적 의사소통 패턴, 남편요구-아내철회, 아내요구-남편철회 세 가지 패턴으로 살펴보았으며, 남편과 아내가 세 변인에 대해 각각 보고함에 따라 총 6개의 매개 변인이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총 24개의 매개모형을 검증하였다. 매개모형에서 변인 간의 인과관계는 이론을 바탕으로 상정해야 하는데 (Thoemmes, 2015),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이상화가 이상화 주체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보고한 기존 종단적 연구(Murray et al., 2011) 등을 바탕으로 이상화가 의사소통의 차이를 통해 이상화 주체 및 객체의 만족도로 이어지는 방향의 모델을 검증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서울에 소재한 대학 내 게시판 및 인근 아파트 게시판, 그리고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을 통해 모집된 78쌍의 부부였다.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남편이 38세(표준편차 = 6.45), 아내가 36세(표준편차 = 6.37)였으며, 87%의 참여자(n = 136)가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 수준을 보고하였다. 참여 부부의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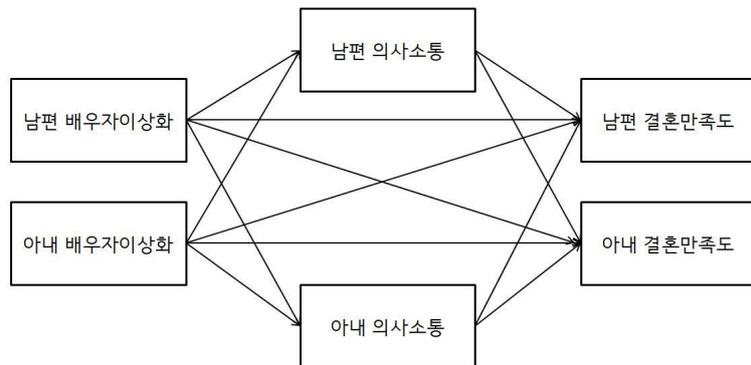


그림 1. 자기-상대방 상호의존성 매개 모형(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ediation Model)

결혼 기간은 7.24년(표준편차 = 6.64)이었고, 68%의 부부(53쌍)는 한 명 이상의 자녀가 있었다. 참여 부부는 예정된 시간에 함께 연구실에 방문해 독립된 공간에서 각자 설문지에 응답하였다.¹⁾

측정도구

배우자이상화

참여자들은 대인관계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30개의 특성에 대해 각 특성이 자기 자신, 배우자, 이상적 남편상, 그리고 이상적 아내상을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 9점 척도(1점: 완전히 그렇지 않다, 9점: 완전히 그렇다)로 평가하였다. 보다 포괄적인 성격 프로파일을 구성하기 위해 30개의 특성에는 긍정적(예, 친절함), 중립적(예, 감성적인), 부정적인(예, 이기적인) 특성이 각 10개씩 포함되었다.²⁾

배우자이상화 지수는 참여자가 보고한 배우자평가, 이상형평가(남성의 경우 이상적 아내상에 대한 평가, 여성의 경우 이상적 남편상에 대한 평가), 배우자가 보고한 자기평가 점수를 이용해, 2단계의 절차를 거쳐 산출되었다(유사한

방법론에 관해서는 다음 논문 참조: 정고운, 조민수, 박선웅, 2017; Park & Colvin, 2014). 우선 참여자가 보고한 배우자평가와 배우자가 보고한 자기평가 점수 간의 차이를 자기-준거 잔차법(self-criterion residual method; John & Robins, 1994)을 응용하여 계산하였다. 구체적으로 30개의 특성에 대해 각각 참여자의 배우자평가를 준거변인으로, 배우자의 자기평가를 예측변인으로 설정하여 30번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회귀분석에서 계산된 잔차는 각 특성에 대한 참여자의 배우자평가와 배우자의 자기평가 간의 차이를 가리킨다.³⁾ 예를 들어 ‘다정한’이라는 특성에 대한 정적인 잔차는 배우자 스스로 자신이 얼마나 다정한지 평가한 것에 비해 참여자가 배우자를 더 다정하다고 평가했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부정적인 잔차는 참여자가 배우자의 자기평가보다 배우자를 덜 다정하다고 평가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30개의 특성에 대한 잔차 점수와 동일한 특성에 대한 참여자의 이상형에 대한 평가 사이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이때 정적인 상관계수는 참여자의 이상형과 관련된 특성들(이상형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음)에 대해서는 참여자들이 배우자의 자기평가보다 높은 점수를 주고(정적인 잔차), 이상형과 반대되는 특성들(이상형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음)에 대해서는 참여자들이 배우자의 자기평가보다 낮은 점수를 주었음(부적 잔차)을 의미한다. 즉, 이 분석 과정은 참여자의 배우자지각과 배우자의 자기지각 간의 괴리가 얼마나 참여자의 이상적 배우자상과 일치하는지를 나타낸다. 각 상관계수는 Fisher의 r -to- z transformation 공식을 이용하여 z 점수로

3) 사람들의 자기평가는 다양한 동기의 영향을 받아 과대평가나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배우자의 자기평가를 현실에 대한 객관적 지표로 보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배우자지각과 배우자의 자기지각 간의 괴리를 나타내는 이 잔차 점수를 “실제”와 다르게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자기평가”와 다르게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 1) 자세한 연구절차 및 설문에 포함된 변인은 Open Science Framework(<https://osf.io/yms4w/>)에 제시되었다.
- 2) 설문에 포함된 30개의 특성은 별도의 사전조사를 통해 선별되었다. 구체적으로 연구자들은 555개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 목록에서(Anderson, 1968) 기존 척도를 참고하여(예, Interpersonal Qualities Scale; Murray & Holmes, 1997)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40개의 특성(긍정적 특성 12개, 중립적 특성 14개, 부정적 특성 14개)을 간추렸다. 총 3명의 연구자가 번역 및 역번역 과정을 통해 한글 문항을 만들었다. 이후 21명의 석사 및 박사과정 대학원생들이 각 40개의 특성이 대인관계에서 얼마나 긍정적/바람직한 특성인지에 대해 9점 척도(1점: 아주 부정적, 5점: 중립적, 9점: 아주 긍정적)를 이용해 평가하였으며, 9점에 가장 가까운 긍정적 특성 10개($M = 7.59$; $SD = 0.38$), 5점에 가까운 중립적 특성 10개($M = 5.03$; $SD = 0.55$), 1점에 가까운 부정적 특성 10개($M = 2.27$, $SD = 0.64$)가 최종적으로 설문에 포함되었다.

전환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값을 배우자이상화 지수로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배우자이상화를 가리킨다.

의사소통 패턴

부부의 의사소통 패턴을 측정하기 위해 Christensen(1987)이 개발하고 Crenshaw와 동료들이 (Crenshaw, Christensen, Baucom, Epstein, & Baucom, 2017) 수정한 의사소통패턴 척도(Communication Patterns Questionnaire)의 23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참여자들은 어떤 문제에 대해 갈등이 생겼을 때,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한 후 두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는지에 대해 7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였으며, 건설적 의사소통은 9문항(예, “두 사람 모두 자기감정을 상대방에게 표현한다.”), 자기요구-배우자 철회(예, “나는 대화를 시작하려고 하고 배우자는 대화를 피하려고 한다.”)와 배우자요구-자기 철회(예, “배우자는 대화를 시작하려고 하고 나는 대화를 피하려고 한다.”)는 각각 7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분석에서는 하나의 변인이 동일한 의사소통 패턴을 가리키도록 남편요구-아내철회, 아내요구-남편철회 변인을 만들어 사용하였다(예를 들어, 남편요구-아내철회 변인은 남편의 경우 자기요구-배우자철회, 아내의 경우 배우자요구-아내철회 점수에 해당한다).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투자모델 척도 (Rusbult, Martz, & Agnew, 1998)에서 만족도를 측정하는 5개의 문항(예, “나는 이 부부관계에 만족한다.”)을 사용하였으며, 참여자들은 각 문항에 대해 7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결 과

기초통계 결과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와 각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남편과 아내 모두 높은 배우자이상화는 본인이 지각하는 높은 건설적 의사소통 패턴, 낮은 남편요구-아내철회 및 낮은 아내요구-남편철회와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남편과 아내의 높은 배우자이상화는 본인 및 배우자의 높은 결혼만족도와도 상관을 보였다. 추가적으로 주요 변인에서 남편과 아내가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대응 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배우자이상화의 경우 남편과 아내의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결혼만족도에서는 남편이 아내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77) = 2.70, p = .009$. 또한 남편은 건설적 의사소통 패턴을 아내보다 높게, $t(77) = 1.98, p = .05$, 아내요구-남편철회 패턴은 아내보다 낮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t(77) = -2.93, p = .004$.

주요 분석 결과

배우자이상화와 결혼만족도 사이에서 의사소통 패턴의 간접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APIM을 토대로 다층모형 분석(multilevel modeling)을 실시하였다. 모든 모형에서 남편과 아내의 절편과 기울기를 다르게 추정하였고 제한적 최대우도법(Restricted Maximum Likelihood)을 이용하였으며 예측변인은 분석 전 전체평균 중심화(grand-mean centering)하였다. 분석은 통계 프로그램 R의 nlme 패키지(Pinheiro, Bates, DebRoy, Sarkar, & R Core Team, 2014)를 사용하였다. 다층 모형 분석을 이용한 매개분석 절차에 따른 세 단계의 모형을 표 2에 제시하였다.

먼저 모형 1에서 배우자이상화가 주체와 객체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총효과)를 살펴본 것을 보면, 남편과 아내 모두 배우자이상화가 정적으로 유의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갖는

표 1.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 남편 배우자이상화	-										
2. 남편 건설적 의사소통	.55**	-									
3. 남편 남편요구-아내철회	-.44**	-.53**	-								
4. 남편 아내요구-남편철회	-.46**	-.56**	.47**	-							
5. 남편 결혼만족도	.63**	.46**	-.42**	-.44**	-						
6. 아내 배우자이상화	.13	.42**	-.17	-.33**	.44**	-					
7. 아내 건설적 의사소통	.32**	.51**	-.30**	-.38**	.57**	.58**	-				
8. 아내 남편요구-아내철회	-.24*	-.29**	.40**	.21	-.40**	-.40**	-.46**	-			
9. 아내 아내요구-남편철회	-.20	-.32**	.27*	.56**	-.48**	-.40**	-.60**	.36**	-		
10. 아내 결혼만족도	.36**	.38**	-.16	-.39**	.68**	.65**	.70**	-.46**	-.49**	-	
11. 결혼기간(년)	.01	-.26*	.19	.11	-.02	-.31**	-.19	.16	-.04	-.17	-
평균	0.14	5.08	2.33	2.89	5.30	0.14	4.85	2.42	3.32	4.96	7.19
표준편차	0.54	0.96	1.03	1.30	1.14	0.53	1.10	1.04	1.48	1.48	6.66
α	-	.84	.82	.85	.92	-	.84	.85	.80	.96	-

* $p \leq .05$, ** $p \leq .01$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배우자를 이상화하는 것은 주체와 객체 모두에게서 높은 결혼만족도와 상관성이 있었다. 모형 2에서는 배우자이상화를 예측변인으로, 의사소통 패턴을 준거변인으로 설정하여 배우자이상화가 세 가지 의사소통 패턴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남편과 아내 모두 배우자이상화가 세 가지 패턴과 유의한 자기효과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아내를 이상화하는 남편은 건설적 의사소통을 높게, 남편요구-아내철회 및 아내요구-남편철회 패턴을 낮게 지각하고 있었으며, 남편을 이상화하는 아내 또한 동일한 경향성을 보였다. 하지만 상대방효과를 살펴보았을 때 남편의 높은 배우자이상화는 아내가 지각하는 남편요구-아내철회 혹은 아내요구-남편철회 패턴과는 상관성이 없었으며, 아내의 높은 배우자이상화는 남편이 지각하는 남편요구-아내철회 패턴과는 무관했다. 마지막으로 모형 3에서는 배우자이상화와 의사소통 패턴을

동시에 예측변인으로 투입하여, 의사소통 패턴을 통제하였을 때 배우자이상화가 결혼만족도에 갖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의사소통 패턴의 통제 유무에 따라 배우자이상화와 결혼만족도의 상관성이 달라지는 정도를 의사소통 패턴을 통한 간접효과로 볼 수 있다.

배우자이상화가 세 가지 의사소통 패턴을 통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Monte Carlo 신뢰구간 추정법(Preacher & Selig, 2012)을 사용하였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APIM모형 내에서는 각 의사소통 패턴 당 8개의 간접효과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남편의 배우자이상화가 남편의 건설적 의사소통을 통해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한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모형 2의 남편 배우자이상화 자기효과와 모형 3의 남편 건설적 의사소통 자기효과를 이용한다. 표 3에 분석 결과 유의하게 나타난 간접

표 2. 배우자이상화, 결혼만족도, 세 가지 의사소통 패턴을 이용한 다층모형 분석

모형 1. 준거변인: 결혼만족도									
예측변인	<i>b</i>	<i>SE</i>	<i>t</i>						
남편									
배우자이상화 자기효과	1.24	0.17	7.30**						
배우자이상화 상대방효과	0.77	0.17	4.50**						
아내									
배우자이상화 자기효과	1.72	0.23	7.48**						
배우자이상화 상대방효과	0.77	0.23	3.39**						
모형 2. 준거변인: 의사소통 패턴									
예측변인	의사소통 패턴 (준거변인)								
	건설적 의사소통			남편요구-아내철회			아내요구-남편철회		
	<i>b</i>	<i>SE</i>	<i>t</i>	<i>b</i>	<i>SE</i>	<i>t</i>	<i>b</i>	<i>SE</i>	<i>t</i>
남편									
배우자이상화 자기효과	0.90	0.16	5.68**	-0.82	0.20	-4.10**	-1.03	0.24	-4.30**
배우자이상화 상대방효과	0.64	0.16	3.97**	-0.22	0.20	-1.10	-0.67	0.24	-2.73**
아내									
배우자이상화 자기효과	1.12	0.19	6.00**	-0.73	0.20	-3.58**	-1.07	0.29	-3.65**
배우자이상화 상대방효과	0.52	0.19	2.78**	-0.37	0.20	-1.84	-0.42	0.29	-1.44
모형 3. 준거변인: 결혼만족도									
예측변인	의사소통 패턴 (예측변인)								
	건설적 의사소통			남편요구-아내철회			아내요구-남편철회		
	<i>b</i>	<i>SE</i>	<i>t</i>	<i>b</i>	<i>SE</i>	<i>t</i>	<i>b</i>	<i>SE</i>	<i>t</i>
남편									
배우자이상화 자기효과	1.18	0.20	5.99**	1.11	0.19	5.96**	1.22	0.18	6.76**
배우자이상화 상대방효과	0.49	0.21	2.38*	0.65	0.18	3.57**	0.57	0.18	3.22**
의사소통 자기효과	-0.11	0.12	-0.86	-0.10	0.10	-1.00	0.07	0.09	0.80
의사소통 상대방효과	0.31	0.10	2.98**	-0.13	0.10	-1.28	-0.23	0.07	-3.15**
아내									
배우자이상화 자기효과	1.18	0.26	4.64**	1.52	0.24	6.34**	1.48	0.24	6.10**
배우자이상화 상대방효과	0.67	0.24	2.76**	0.83	0.24	3.39**	0.71	0.25	2.90**
의사소통 자기효과	0.61	0.13	4.71**	-0.33	0.13	-2.53**	-0.25	0.10	-2.51**
의사소통 상대방효과	-0.24	0.15	-1.58	0.22	0.13	1.64	0.05	0.12	0.38

주. 각 효과는 준거변인을 보고한 사람을 기준으로 기재되어 있다. 즉, 자기효과는 한 사람(A)의 예측변인이 그 사람(A)의 준거변인에 미치는 효과를, 상대방효과는 배우자(B)의 예측변인이 그 사람(A)의 준거변인에 미치는 효과를 가리킨다.

p* ≤ .05, *p* ≤ .01

표 3. 배우자이상화와 결혼만족도에서 세 가지 의사소통 패턴의 간접효과

간접효과	<i>b</i>	95% CI
건설적 의사소통		
아내 배우자이상화 → (+)아내 건설적 의사소통 → (+)아내 결혼만족도	0.68	[0.35, 1.09]
아내 배우자이상화 → (+)아내 건설적 의사소통 → (+)남편 결혼만족도	0.35	[0.11, 0.63]
남편 배우자이상화 → (+)아내 건설적 의사소통 → (+)아내 결혼만족도	0.31	[0.08, 0.60]
남편 배우자이상화 → (+)아내 건설적 의사소통 → (+)남편 결혼만족도	0.16	[0.03, 0.34]
남편요구-아내철회		
아내 배우자이상화 → (-)아내 남편요구-아내철회 → (-)아내 결혼만족도	0.19	[0.00, 0.43]
아내요구-남편철회		
아내 배우자이상화 → (-)아내 아내요구-남편철회 → (-)아내 결혼만족도	0.27	[0.05, 0.56]
아내 배우자이상화 → (-)아내 아내요구-남편철회 → (-)남편 결혼만족도	0.25	[0.07, 0.48]

p* ≤ .05, *p* ≤ .01

효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남편과 아내의 배우자이상화는 아내가 보고하는 건설적 의사소통 수준을 통해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자기효과 및 상대방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배우자이상화가 높다면 아내가 건설적인 의사소통 패턴을 보였고 이는 남편과 아내 모두의 높은 결혼만족도로 이어졌다. 배우자이상화가 남편의 건설적 의사소통 수준을 통해 주체 및 객체의 높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두 번째로, 남편을 이상화하는 아내는 남편요구-아내철회 패턴을 낮게 지각하였으며 이는 아내의 높은 결혼만족도와 상관이 있었다. 아내의 배우자이상화가 아내가 지각한 남편요구-아내철회 패턴을 통해 남편의 높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 아내의 배우자이상화가 남편이 지각한 남편요구-아내철회 패턴을 통해 아내의 높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 등은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아내의 배우자이상화가 낮은 아내요구-남편철회 패턴을 통해 본인 및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

또한 유의하게 나타났다. 반면, 아내의 배우자이상화가 남편이 지각한 아내요구-남편철회 패턴을 통해 두 사람의 높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모든 분석 결과는 결혼기간을 통제했을 때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있어 높은 배우자이상화는 주체 및 객체의 높은 결혼만족도와 상관이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아내의 의사소통 방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배우자이상화가 이상화의 주체 및 객체의 결혼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나아가 둘 간의 관계에서 세 가지 의사소통 패턴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연구 결과 남녀 모두 배우자이상화는 본인 및 상대방의 높은 결혼만족도와 상관이 있었다. 즉, 배우자를 자신의 이상형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편향되게 지각하는 것은 두 사람 모두의 관계 만족도에 긍정적이었다. 또한 이러한

관계에서 아내가 지각하는 의사소통 패턴을 통한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편과 아내의 배우자이상화는 아내가 지각하는 높은 건설적 의사소통을 통해 두 사람 모두의 높은 결혼만족도로 이어졌다. 또한 아내의 배우자이상화는 낮은 수준의 남편요구-아내철회 패턴을 통해 본인의 높은 결혼만족도로 이어졌으며, 낮은 수준의 아내요구-남편철회 패턴을 통해 본인 및 남편의 높은 결혼만족도로 이어졌다.

배우자이상화의 주체가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다수의 선행연구와 일치하지만(Miller et al., 2006), 이상화의 객체가 되는 배우자의 결혼만족도 또한 높다는 결과는 몇몇 관점에서 예측할 수 있는 가설과는 상반된다. 예를 들어 이상화가 그 객체로 하여금 관계 내 특권의식(Tolmacz & Mikulincer, 2011)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는 이상화 객체의 관계만족도가 낮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대상은 결혼한 지 평균 7년이 넘은 부부였기 때문에 관계 내에서 배우자가 자신을 이상화한다는 지각이 여전히 우월감이나 특권의식을 부여하기보다는 배우자에게 자신이 의미가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perceived mattering; Mak & Marshall, 2004) 혹은 가치를 인정받은 느낌(feelings of being appreciated; Gordon, Impett, Kogan, Oveis, & Keltner, 2012) 등을 주어 높은 만족도로 이어졌을 수 있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 보고한 이상화 객체의 높은 결혼만족도는 연인이 부과하는 완벽주의가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와도 일부 상충한다(Haring et al., 2003). 연구자들은 완벽함에 대한 염려와 완벽함 추구를 구분하고 염려가 아닌 추구의 경우 긍정적인 결과와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Stoeber & Otto, 2006). 이러한 관점에서 부부 간 이상화는 그 대상으로 하여금 배우자의 이상에 가까워지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어져 긍정적 결과를 낳았을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확인한 배우자이상화 객

체의 적응적인 의사소통 패턴은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아내의 배우자이상화가 높을 때 남편은 건설적 의사소통을 높게, 아내 요구-남편철회 패턴을 낮게 보고했으며, 남편의 배우자이상화가 높을 때 아내는 건설적 의사소통을 높게 보고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부부 관계에서 이상화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관계 유지 행동을 감소하기보다는(Tomlinson et al., 2014), 오히려 더 좋은 배우자가 되고자 하는 노력, 더 나은 관계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들인다는 것을 시사하며, 배우자에 대한 이상화가 실제로 배우자를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자기충족적 예언의 관점(Downey et al., 1998; Murray et al., 1996)과도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남편과 아내가 보고한 세 가지 의사소통 패턴 간 상관성이 높지 않았으며(표 1), 남편이 보고한 의사소통 패턴을 통한 간접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 가지 가능성은 아내가 보고한 부부의 의사소통 패턴이 더 정확하게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배우자이상화와 두 사람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유의하게 설명했다는 것이다. 여성이 남성보다 자신 및 배우자의 갈등 대처 행동에 대해(객관적인 평가자의 판단에 비추었을 때) 더 정확하게 지각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는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한다(Hojjat, 2000). 또 다른 가능성은 아내가 부부의 의사소통 패턴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가 정확도와는 무관하게 두 사람의 관계 만족도에 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다. 대체로 아내의 특성이 남편의 특성보다 부부의 결혼 지속 여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Heaton & Blake, 1999), 남편보다 아내가 갈등 상황에서 보이는 감정 조절 능력이 건설적 의사소통 패턴을 통해 자신 및 배우자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Bloch, Haase, & Levenson, 2014) 등을 고려할 때, 여성이 부부의 의사소통 방식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가 객관적 정확도와는 무관하게 두 사

람의 결혼만족도에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관찰자의 평가를 이용해 부부의 의사소통을 측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이러한 가능성을 검증해 볼 수 있다. 자기보고식 척도만으로 부부의 의사소통 패턴을 보았다는 것은 본 연구의 한계점 중 하나이며,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한 사람이 보고하는 의사소통 패턴은 그 사람이 지각하고 있으며 보고할 의향이 있는 현실의 일부만을 반영하기 때문에 관찰자의 관점에서 본 보다 객관적인 평가와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갈등 상황에서의 의사소통 패턴에 초점을 두었는데 이는 분명 결혼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지만(Noller & Feeney, 1998), 부부의 의사소통이 갈등 상황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즉, 부부가 서로 정서적 지지를 소통하는 방식(Lawrence et al., 2008) 혹은 애정을 표현하는 방식(Floyd, 2006) 등 긍정적인 맥락에서의 의사소통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를 이상화하는 사람은 배우자에게 더 많은 (신체적, 언어적) 애정표현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갈등상황에서의 의사소통 방식과는 독립적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혹은 애정표현이 잦은 관계에서는 요구-철회패턴 등 부정적인 의사소통 방식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적게 나타날 수도 있다(Caughlin & Huston, 2002).

본 연구가 갖는 또 다른 한계점은 이상형을 성격적 차원에서만 묘사했다는 점이다. 현실세계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이상형을 ‘찰랑이는 긴 생머리를 가진 여자’나 ‘두터운 저음의 목소리를 가진 남자’ 등 성격이 아니라 신체적 특성을 바탕으로 묘사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따라서 성격적 특성이 아니라 신체적 특성이나 사회적 배경 등이 이상형의 요소로 더 중요한 참여자들에게는 본 연구에서 조작화한 배우자이상화가 큰 타당도를 갖지 않을 수 있다. 향후 참여자 스스로 이상형의 특성들을 제시한 후 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

여 생태학적 타당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의사소통 패턴이 배우자이상화와 결혼만족도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기제는 아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특히 남편의 배우자이상화가 두 사람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는 변인에 대해 더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종단적 연구를(Murray et al., 2011) 바탕으로 배우자이상화가 결혼만족도에 선행하는 모델을 상정하였다. 하지만 횡단적 자료로는 이러한 인과관계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없다는 점을(Thoemmes, 2015) 감안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배우자이상화가 적응적인 의사소통 방식 등과 같은 관계 유지 행동의 선행요인이며 이로 인해 결혼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인과적 방향성을 실험적 방법을 사용하거나 종단적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국인 부부를 대상으로 배우자이상화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 및 상대방효과를 동시에 살펴보았으며, 그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기제로서 의사소통 패턴을 검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배우자에 대한 이상화, 즉 긍정적 착각은 선행연구에서 보고한 자기 자신 혹은 세상에 대한 긍정적 착각과 마찬가지로(이숙희, 고재홍, 2012) 한국인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결과는 배우자에 대한 환상이 깨지기 쉬운 결혼 초기의 부부 관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Murray et al., 2011) 결혼 기간과 무관하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결혼 생활에서 상대방에 대한 지각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탐색한 배우자에 대한 지각과 갈등 상황에서의 (부)적응적인 행동 간의 관계는 실질적인 부부 교육프로그램 및 상담에도 활용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지각이나 적응적인 갈등 소통방식은 개인의 노력을 통해서 변화 가능한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부부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될

경우 부부 간 갈등을 예방 혹은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나아가 부부가 배우자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 부부가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배우자에 대한 평가에 기인하는지 등에 대해 파악하는 것은 상담자가 갈등에 마주한 부부의 행동을 이해하고 교정하는 데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희진 (2004). 한국 부부의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상담학연구*, 5, 839-853.
- 박영화, 고재홍 (2005). 부부의 자존감, 의사소통 방식, 및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 65-83.
- 이숙희, 고재홍 (2012). 부부의 긍정적 착각과 결혼만족도: 자기효과와 배우자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 149-170.
- 장문선 (2002). 부부 의사소통패턴과 특징적 갈등대처방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 331-347.
- 정고운, 조민수, 박선웅 (2017). 메타지각의 부정적 왜곡과 우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1, 1-14.
- Anderson, N. H. (1968). Likableness ratings of 555 personality-trait word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 272-279.
- Baucom, D. H., Epstein, N. B., Kirby, J. S., & LaTaillade, J. J. (2010). Cognitive-behavioral couple therapy. In K.S. Dobson (Ed.), *Handbook of cognitive-behavioral therapy* (pp. 411-444). New York, NY: Guilford Press.
- Bloch, L., Haase, C. M., & Levenson, R. W. (2014). Emotion regulation predicts marital satisfaction: More than a wives' tale. *Emotion*, 14, 130-144.
- Bradbury, T. N., & Fincham, F. D. (1990). Attributions in marriage: Review and critique. *Psychological Bulletin*, 107, 3-33.
- Campbell, L., Lackenbauer, S. D., & Muise, A. (2006). When is being known or adored by romantic partners most beneficial? Self-perceptions, relationship length, and responses to partner's verifying and enhancing appraisal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2, 1283-1294.
- Caughlin, J. P., & Huston, T. L. (2002). A contextual analysis of the association between demand/withdraw and marital satisfaction. *Personal Relationships*, 9, 95-119.
- Caughlin, J. P., & Vangelisti, A. L. (1999). Desire for change in one's partner as a predictor of the demand/withdraw pattern of marital communication. *Communications Monographs*, 66, 66-89.
- Christensen, A. (1987). Detection of conflict patterns in couples. In K. Hahlweg & M. J. Goldstein (Eds.), *Understanding major mental disorder: The contribution of family interaction research* (pp. 250-265). New York, NY: Family Process Press.
- Christensen, A., & Heavey, C. L. (1993). Gender differences in marital conflict: The demand/withdraw interaction pattern. In S. Oskamp & M. Costanzo (Eds.), *Claremont symposium on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 6. Gender issues in contemporary society* (pp. 113-141).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Crenshaw, A. O., Christensen, A., Baucom, D. H., Epstein, N. B., & Baucom, B. R. (2017). Revised scoring and improved reliability for the Communication Patterns Questionnaire. *Psychological Assessment*, 29, 913-925.
- Downey, G., Freitas, A. L., Michaelis, B., & Khouri, H. (1998). The self-fulfilling prophecy in close relationships: Rejection sensitivity and rejection by romantic partn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 Social Psychology*, 75, 545-560.
- Eldridge, K. A., & Christensen, A. (2002). Demand-withdraw communication during couple conflict: A review and analysis. In P. Noller & J. A. Feeney (Eds.), *Understanding marriage: Developments in the study of couple interaction* (pp. 289-322).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incham, F. D. (2004). Communication in marriage. In A. Vangelisti (Ed.), *Handbook of family communication* (pp. 83-103).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Floyd, K. (2006). *Communicating affection: Interpersonal behavior and social context*.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eorge-Levi, S., Vilchinsky, N., Tolmacz, R., & Liberman, G. (2014). Testing the concept of relational entitlement in the dyadic context: Further validation and associations with relationship satisfaction.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8, 193-203.
- Gordon, A. M., Impett, E. A., Kogan, A., Oveis, C., & Keltner, D. (2012). To have and to hold: Gratitude promotes relationship maintenance in intimate bond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3, 257-274.
- Gottman, J. M., Coan, J., Carrere, S., & Swanson, C. (1998). Predicting marital happiness and stability from newlywed interac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 5-22.
- Gottman, J. M., & Levenson, R. W. (2000). The timing of divorce: Predicting when a couple will divorce over a 14 year period.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 737-745.
- Haring, M., Hewitt, P. L., & Flett, G. L. (2003). Perfectionism, coping, and quality of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5, 143-158.
- Heaton, T. B., & Blake, A. M. (1999). Gender differences in determinants of marital disruption. *Journal of Family Issues*, 20, 25-45.
- Heavey, C. L., Layne, C., & Christensen, A. (1993). Gender and conflict structure in marital interaction: A replic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 16-27.
- Hojjat, M. (2000). Sex differences and perceptions of conflict in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7, 598-617.
- Huston, T. L. (1994). Courtship antecedents of marital satisfaction and love. In R. Erber & R. Gilmore (Eds.), *Theoretical frameworks for personal relationships* (pp. 43-65). Hillsdale, NJ: Erlbaum.
- John, O. P., & Robins, R. W. (1994). Accuracy and bias in self-perception: Individual differences in self-enhancement and the role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206-219.
- Kenny, D. A., Kashy, D. A., & Cook, W. L. (2006). *The analysis of dyadic data*. New York, NY: Guilford Press.
- Kunda, Z. (1990). The case for motivated reasoning. *Psychological Bulletin*, 108, 480-498.
- Laurenceau, J. P., Barrett, L. F., & Rovine, M. J. (2005). The interpersonal process model of intimacy in marriage: A daily-diary and multilevel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9, 314-323.
- Lawrence, E., Bunde, M., Barry, R. A., Brock, R. L., Sullivan, K. T., Pasch, L. A., ... & Adams, E. E. (2008). Partner support and marital satisfaction: Support amount, adequacy, provision, and solicitation. *Personal Relationships*, 15, 445-463.
- Mackinnon, S. P., Sherry, S. B., Antony, M. M., Stewart, S. H., Sherry, D. L., & Hartling, N. (2012). Caught in a bad romance: Perfectionism, conflict, and depression in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6, 215-225.

- Mak, L., & Marshall, S. K. (2004). Perceived mattering in young adults'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1*, 469-486.
- McLeod, J. M., & Chaffee, S. H. (1973). Interpersonal approaches to communication research.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16*, 469-499.
- Merton, R. K. (1948). The self-fulfilling prophecy. *Antioch Review, 8*, 193-210.
- Miller, P. J., Niehuis, S., & Huston, T. L. (2006). Positive illusions in marital relationships: A 13-year longitudinal stud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2*, 1579-1594.
- Murray, S. L. (1999). The quest for conviction: Motivated cognition in romantic relationships. *Psychological Inquiry, 10*, 23-34.
- Murray, S. L., Griffin, D. W., Derrick, J. L., Harris, B., Aloni, M., & Leder, S. (2011). Tempting fate or inviting happiness? Unrealistic idealization prevents the decline of marital satisfaction. *Psychological Science, 22*, 619-626.
- Murray, S. L., & Holmes, J. G. (1997). A leap of faith? Positive illusions in romantic relationship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3*, 586-604.
- Murray, S. L., Holmes, J. G., & Griffin, D. W. (1996). The self-fulfilling nature of positive illusions in romantic relationships: Love is not blind, but presci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1155-1180.
- Neff, L. A., & Karney, B. R. (2005). To know you is to love you: The implications of global adoration and specific accuracy for marital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 480-497.
- Noller, P., & Feeney, J. A. (1998). Communication in early marriage: Responses to conflict, nonverbal accuracy, and conversational patterns. In T. N. Bradbury (Ed.), *The developmental course of marital dysfunction* (pp. 11-43).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verall, N. C., Fletcher, G. J., & Simpson, J. A. (2006). Regulation processes in intimate relationships: The role of ideal standard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1*, 662-685.
- Park, S. W., & Colvin, C. R. (2014). Narcissism and discrepancy between self and friends' perceptions of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82*, 278-286.
- Pinheiro, J., Bates, D., DebRoy, S., Sarkar, D., & R Core Team. (2014). *nlme: Linear and Nonlinear Mixed Effects Models*. R package Version 3.1-117. Retrieved from <http://CRAN.R-project.org/package=nlme>
- Preacher, K. J., & Selig, J. P. (2012). Advantages of Monte Carlo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Communication Methods and Measures, 6*, 77-98.
- Rusbult, C. E., Martz, J. M., & Agnew, C. R. (1998). The investment model scale: Measuring commitment level, satisfaction level, quality of alternatives, and investment size. *Personal Relationships, 5*, 357-387.
- Sprecher, S. (1988). Investment model, equity, and social support determinants of relationship commitment.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1*, 318-328.
- Stanley, S. M., Markman, H. J., & Whitton, S. W. (2002). Communication, conflict, and commitment: Insights on the foundations of relationship success from a national survey. *Family Process, 41*, 659-675.
- Stoeber, J. (2012). Dyadic perfectionism in romantic relationships: Predicting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long-term commitmen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3*, 300-305.
- Stoeber, J., & Otto, K. (2006). Positive conceptions of perfectionism: Approaches, evidence,

- challeng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0, 295-319.
- Thoemmes, F. (2015). Reversing arrows in mediation models does not distinguish plausible models.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37, 226-234.
- Tolmacz, R., & Mikulincer, M. (2011). The sense of entitlement in romantic relationships-Scale construction, factor structure, construct validity, and its associations with attachment orientations. *Psychoanalytic Psychology*, 28, 75-94.
- Tomlinson, J. M., Aron, A., Carmichael, C. L., Reis, H. T., & Holmes, J. G. (2014). The costs of being put on a pedestal: Effects of feeling over-idealized.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31, 384-409.
- Waller, W., & Hill, R. (1951). *The family: A dynamic interpretation*. Ft Worth, TX: Dryden Press.
- 1 차원고접수 : 2018. 01. 16.
수정원고접수 : 2018. 02. 22.
최종게재결정 : 2018. 02. 23.

Partner-Idealiza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The Mediating Role of Communication Patterns

Yoobin Park

University of Toronto

Geurim Han

Yeonwoo Jeong

Korea University

Sun W. Park

The aim of the present research was to examine whether partner-idealization (i.e., perceiving one's partner more closely to one's ideal partner than partner's own self-perception) is related to one's own and the partner's marital satisfaction and to explore the role of communication patterns (constructive communication, husband demand-wife withdraw, and wife demand-husband withdraw) in that process. Seventy-eight married couples rated themselves, their partner, and an ideal partner on interpersonal qualities, and responded to measures of communication patterns and marital satisfaction. The results showed that for both husbands and wives, higher partner-idealization was related to one's own and the partner's greater marital satisfaction. We also found that either partner's partner-idealization was related to wife's report of more constructive communication, which in turn was related to both partners' greater marital satisfaction. The positive relation between wife's partner-idealization and her own marital satisfaction was mediated by low wife-perceived husband demand-wife withdraw and wife demand-husband withdraw patterns. The positive relation between wife's partner-idealization and husband's marital satisfaction was mediated by low wife-perceived wife demand-husband withdraw pattern. Taken together, individuals who idealized their partner or were idealized by their partner were more satisfied in their relationship, and how wives came to perceive the communication pattern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is process. We discussed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for the short- and long-term effects of partner perceptions on marital satisfaction.

Key words : idealization, positive illusions, romantic relationship, marital satisfaction, conflict communication